

[찬양과 큐티 14]

“평안이 가득한 주님의 품”

김희석 성가사 / 2001 / 페이지 수: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찬송가 469장)

어렸을 때였다. 다른 식구들이 다 잠든 밤에 이 방 저 방 기웃거리며 형의 콧구멍에 머리카락을 넣어보기도 하고, 동생 코밑에 치약을 바르고, 누나 방에서 시끄럽게 피아노도 치면서 나만의 자유를 맘껏 누리며 장난을 쳤다. 노는 것이 지겨워져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빨리 자야 할텐데’하며 눈을 감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워보기도 하고 구구단도 외워 보며 잠을 청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혼자만 있다는 불안감에 이불을 뒤집어써도 마음만 초조해질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천둥과 번개까지 쳤다. 너무 무서워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부모님 방문 앞에 서자 ‘여태 자지 않고 뭐 했냐?’고 꾸중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께 꾸중듣는 것은 두려웠지만 번개와 어둠이 더 무서웠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지만 부모님의 엄한 꾸중이 나의 뇌리에선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난 부모님의 방문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조그맣게 시작된 울음은 엉엉 큰 소리로 변했고, 그 소리에 아버지는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왜 울어?”

“잠이 안 와요.”

아버지는 날 안고 방으로 들어가 품에 안아주셨다. 나는 무척 답답했지만 그 날을 하면 다시 내 방으로 쫓겨갈 것 같아서 ‘답답하다.답답하다’속으로만 되뇌이다 잠이 들었다.

아버지의 품 밖에선 자유롭고 편했지만 평화가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막상 아버지를 찾아갔을 땐 나의 잘못을 깨닫고 방문 밖에서 손잡이조차 만지지 못하며 두려움에 울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문책하지 않으시고 울고 있는 나를 품에 안으셨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난 무척 답답하고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평화롭게 잠들 수가 있었다.

주님 밖에서의 세상은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평화가 없었다. 그러다 주님을 다시 찾을 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길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릴 품에 안으셨고 그 품안에서 우리는 조금은 답답하지만 편안함을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찬양한다.

이 땅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 출처 : 큐티와 일대일